

동유럽 집시선교회

(한국외향선교회 헝가리 지회)

3961 Vajdacska, Tohat Ut 40, Hungary

Email : usmcy@hanmail.net

Mobil : (+36) 70-544-7141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에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동안 정체되었던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선교사 동향

1) 최 영/ 양 애자 선교사 : 안식년

2003년 집시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 19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이유로 안식년을 갖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저의 연로하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께서 직장암 수술도 있으셨던 차에 파송교회인 김제신광교회에서 안식년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식년을 갖게 되어 3월 중순 경 귀국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이 되면 여름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 6월 경 선교지에 두세 달 정도 다시금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기간은 유동적)

2) 김 춘미 교수님(한국예술종합학교 은퇴교수님)

김 춘미 교수님께서 헝가리에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9월 말 경에 입국하여 비자를 받고 헝가리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부다페스트에서 앞으로의 사역을 모색하며 장기적으로 협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최 동수 선교사님(Seed 선교회)

인도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를 하신 후에 금년부터는 루마니아 호닷 미션홀에서 선교사역을 하게 됩니다. 최 선교사님은 지난 한 해 헝가리에서 언어훈련을 마치고 2월 8일 루마니아 호닷 선교지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2. 기도제목

1) 7지역의 집시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집시형제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또한 서유럽으로 이주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교회마다 몇 가정 씩 이사를 갔고 남아 있는 가정들도 떠날 계획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2. 루마니아 미션홀 사역을 위해서 (16년 째)

지난 해 미션홀 사역은 문을 열다 닫기를 반복하면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을 만들어 제공하였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햄버거나 도시락을 만들어서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또한 이를 위한 재정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우크라이나의 벨렉사스 집시교회를 위해서

벨렉사스 집시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바르타 엘레미르(Barta Elemir) 목사님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이 예배가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 집시선교 현지 동역자들을 위해서(헝가리 개혁교회,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목회자)

집시선교는 현지 목회자들과 동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시선교를 위해 많은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사보 다니엘 목사님, 판디 데이빗 선교사님(캐나다), 발록 페렌치 목사님, 토스 토마스 목사님, 비하르 산도로와 수산나 목사님, 산도르 토홀통 목사님, 로린치 아띠라와 크리스티나 목사님, 데바이 마띠 목사님, 시몬 바치, 바타르 엘레미르 목사님 등

5. 후원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집시선교를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필요한 선교가 때론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원교회와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6. 집시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을 위한 기도

7지역 집시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해와 동일하게 금년에도 신실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두 명의 반도르 알피와 초카 페레치 신학생들을 위해서

7, 단기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박 지현 선교사(우크라이나) 등 모두가 성령충만하며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8. 최 영/ 양 애자/ 최 예원 선교사 안식년을 위해서

안식년 기간 동안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과 깊은 교제, 후원교회와의 교제, 안식년 기간 동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안식년에 필요한 차량 등 여러 재정 등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도록, 또한 헝가리 남아 있는 최 예원의 학업과 안전을 위해서